

## 이중 독자층이 내재한 아동문학의 번역양상 고찰 —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중심으로

신 지 선  
(이화여대)

### 1. 서론

아동문학은 흔히 어린이를 위한 문학 장르로 분류된다. 아동문학은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완의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 언어적 발달을 촉진해 주며, 평생의 독서습관을 형성해 줄 목적으로 쓰인 어린이용 문학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어린이라는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캐롤(Carroll), 콜로디(Collodi), 페로(Perrault), 폰텐(Fontaine), 페넬롱(Fénélon), 버넌(Bunyan), 스위프트(Swift)<sup>1)</sup>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린이와 어른, 이중 독자층에게서 사랑받는 아동문학 작품이 다수 존재해 왔다. 또한 어떤 작품들은 어른

1) 이 작가들의 작품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피노키오』, 『신데렐라』, 『라 폰텐 우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천로역정』, 『걸리버 여행기』 등이 있다.

과 어린이 중, 어느 한 편의 독자층을 목표로 출판되었다가 후일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권에서 독자층을 달리하여 출판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문학 장르에서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경계가 점차 모호해질 뿐 아니라 아예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Beckett 1999 12).

이처럼 아동문학이 어른에게도 읽히고, 어른을 위해서도 집필된다는 사실이 결코 놀랄만하다거나 급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루이스 캐롤(Carroll)이 말했듯이, “훌륭한 아동문학 작품이란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감동시키는 책이며, 월(Wall)이 지적했듯이, “어린이 책이 출판되고, 판매되고, 소비되려면 어른이 먼저 그 책에 매력을 느껴야 하고, 설득을 당해야 하고, 확신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주요 독자층으로 표방하나, 사실은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잠재적 독자라는 아동문학의 특성은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오티넨(Oittinen 2006 35)이 지적한대로, 아동도서를 번역할 때 번역사는 어린이를 위해서 번역을 해야 하지만, 어떤 책이 번역되어야 할지 선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실제로 번역하는 것도 어른이며, 어린이를 위해 번역서를 구입하는 것도 어른인 것이다. 더 나아가 번역서를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도 어른이다.

어린이만을 위해서 번역을 할 때와 어른까지 독자로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할 때와는 번역방향, 번역전략, 번역규범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아동문학은 독자가 어린이라는 이유로, 번역을 할 때 아동문학이 지닌 문학적 목적과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독성(readability)과 가화성(speakability) 차원에서 각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런데 이중 독자층을 가진 아동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어떠한 번역전략을 따르게 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어른과 어린이, 이중 독자층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영국 아동문학의 고전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The Wind in the Willows*)의 한국어 번역서 세 편을 중심으로, 원문에 내재한 이중 독자층의 특성이 각 번역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각 번역서가 독자층을 고려하여 번역한 결과 번역전략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이중 독자층과 관련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원문 *The*

*Wind in the Willows*와 번역문 세 편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sup>2)</sup>이 지향하는 독자층을 살펴보고, 각각의 번역서가 대상 독자층을 고려하여 번역전략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고찰해보겠다.

## 2. 원서 *The Wind in the Willows*가 지향하는 독자층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이 어릴 때 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꼽고, 미국에서 책의 출간을 망설일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 출간을 추천했다는 영원한 영국문학의 고전 *The Wind in the Willows*는 작가 케네스 그레이엄(Kenneth Grahame)이 1908년에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원래 케네스 그레이엄이 허약한 어린 아들을 위해 침대 곁에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모아서 발간한 것이다. 두더지, 두꺼비, 물쥐, 오소리 등의 동물들이 아름다운 강가를 배경으로 펼치는 모험, 우정, 소망, 자유 등에 관한 이야기로, 작가가 실제로 살았던 강변의 아름다운 정경과, 작가 자신과 아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투영되어 있는 주인공들의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대상 독자층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원작은 어린이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작가가 여러 사람들에게 읽힐 생각으로 쓴 작품이 아니고, 시력이 약하고, 몸이 허약한 외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작의 본래 독자층은 이중 독자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할 수 없으나, 이 작품에 대한 문단의 평가를 살펴보면 원작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분명히 이중 독자층에게서 사랑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동문학 평론가 김서정은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작품일까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동물들이 어린이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의 생태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묘사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 오히려 이 동물들은 독

2)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원문 텍스트는 245페이지였고, 번역서 세 권은 각각 320, 261, 384페이지였다. 전체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본문에서 번역 전략 비교 사례는 극히 일부만 소개하였음을 알려둔다.

자를 무척 헛갈리게 만들지요. 동물과 인간이 뒤섞여 있고 아이와 어른이 뒤섞여 있거든요. --(중략)-- 처음에 대충 읽으면 작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천방지축 동물들의 이런저런 모험담이 두서없이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꼼꼼하게 읽으면 그가 무엇을 뼈저리게 그리워 하는지가 가슴 아프게 드러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동물들의 모험담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작가의 간절한, 그러나 끊임없이 흔들리는 소망을 읽어 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토록 아이와 어른 양쪽을 위한 의미와 재미가 확연하게 나뉘는 어린이 책도 참 드문 거 같습니다. --(중략)-- 그 힘 혹은 충동에 그냥 몸을 맡기는가 하면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순간들이 동물들의 모습을 빌어 때로 유쾌하게, 때로 애잔하게, 때로 감동적으로 펼쳐진다는 점이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 오랜 세월 어린이문학의 고전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사랑받아 온 이유일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은 분명히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이지만, 어른 독자에게는 어린이에게와는 다른 차원에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어른을 위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니콜라예바(Nikolajeva 1999 64)는 어린이와 어른은 같은 텍스트를 보지만, 같은 텍스트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어린이와 어른은 같은 텍스트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지만, 똑같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이 바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해 보겠다. 우선, 오랫동안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서 열광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을 번역사들은 원저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주된 독자층으로 생각하고 번역을 하였는지, 아니면 어른 독자층에 미친 후일의 반향을 보고 어른 독자층을 주로 겨냥하여 번역을 하였는지, 만약 각 번역서가 대상 독자층을 다르게 설정하고 번역을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번역전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번역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세 편이 지향하는 독자층

*The Wind in the Willows*의 한국어 번역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도서는 모두 세 종류<sup>3)</sup>로 시공주니어(신수진 옮김 2003), 웅진주니어(공경희 옮김 2003), 황금두뇌(박선화 옮김 2005)에서 각각 출간되었다. 이 세 종류의 번역서가 어른과 어린이 가운데, 처음부터 목표로 삼는 주요 독자층을 설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번역서의 출판사, 표지, 삽화, 독자를 배려한 안내사항, 역자후기나 서문 등을 살펴보았다<sup>4)</sup>. 편의상 지금부터 시공주니어, 웅진주니어, 황금두뇌의 번역서를 순서대로 번역서 1, 번역서 2, 번역서 3으로 칭하기로 하겠다. 각 번역서를 살펴본 결과, 번역서 1과 번역서 2는 주요 독자층을 아동으로 설정하였고, 번역서 3은 애초에 어른을 대상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각 번역서의 출판사를 살펴보면, 번역서 1은 아동문학 출판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시공주니어에서 출간하였고, 번역서 2 역시 아동문학 작품을 전담하는 웅진주니어에서 출판하였다. 한편 번역서 3은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책을 모두 출판하는 황금두뇌에서 발간되었다.

둘째, 번역서의 표지를 살펴보면, 번역서 1과 번역서 2는 충천연색 동물 삽화가 전면에 그려져 있어 누가 보기에든 어린이를 위한 작품임이 선명히 드러나 있으나, 번역서 3은 표지가 단색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아동도서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다른 두 번역서와는 달리 1권, 2권 두 권으로 나뉘어 있다.

셋째, 독자층을 고려한 번역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번역서 1과 번역서 2는 어린 독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띈다. 우선 번역서 1의 경우,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책에 등장하는 지역 일대를 예쁜 그림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이어 다음 장에는 작가 케네스 그레이엄과

- 
- 3) 김명렬이 번역하고 문예산책 출판사에서 1996년에 출간한 번역서가 한 종 더 있으나 현재 절판된 상태이다. 그 외에 맑은창 출판사에서 2004년에 출간한 번역서가 있으나 번역사가 박선화로 황금두뇌 출판사의 번역사와 같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 Nikolajeva(1999 64)는 성인문학과 대비되는 아동문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대상독자층이 분명하다. 길이가 짧다. 글씨가 크다. 삽화가 있는 경우가 많다. 결표지가 어린 독자층에 어필하게 꾸며져 있다. 제목에 주인공 이름이나 구성상 중요한 사건 등이 표시되어 있다.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된다.”

곰돌이 푸우의 삽화가이자 *The Wind in the Willows*의 1931년 판본의 그림을 담당한 어니스트 쉐퍼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뒤에 원 작품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본 책에 등장하는 인물 소개가 이어진다.

번역서 2의 경우에도,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나, 번역서 3에는 독자를 배려한 이러한 설명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아동문학의 경우, 등장인물이 여럿 등장하고, 더욱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인물과 이름을 매치시키기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책을 읽는 중에 찾아볼 수 있도록 앞에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번역서 3에는 앞의 두 권과는 달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상 독자층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넷째, 각각의 번역사가 어떤 목적과 방침을 가지고 원서에 접근하고 번역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웁긴이의 말 을 살펴보았다. 번역서 1은 “이 책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알아야 할 수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책을 읽는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웁긴이가 어린 독자에게 당부하는 말로 채워져 있다.

다음으로 번역서 2는 “이 글을 쓰면서 독자 여러분을 떠올려 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 유나의 모습에 한 살에서 세 살쯤 더 없어, 밝은 표정의 어린이들이 두툼한 책을 펴든 모습을 그려보니 마음이 설렙니다. 로 시작하여 대상 독자층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밝히고, 그 독자들에게 번역사가 기대하는 이 책의 교훈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번역서 3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날로 발달하는 첨단과학과 더불어 급변하는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처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며 뛰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꿈과 희망과 순수함이 존재하던 동심의 세계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중략)--아무쪼록 독자들도 두더지, 오소리, 물쥐, 두꺼비와 함께 모험을 즐기며 친절함과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작품들을 읽으며 순수하면서도 달콤한 동심의 세계라는 향수에 젖어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여 이 책이 어린이가 아닌 어른을 대상 독자로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다섯째, 각 번역서의 본문에 삽입된 그림을 살펴보면, 번역서 1과 번역서 2

에는 웨퍼드(1931년 판)와 아서 래컴(1940년 판)의 그림이 각각 컬러로 실려 있고, 번역서 3에는 최연수가 그린 스케치 그림이 흑백으로 실려 있다. 아동문학에서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컬러로 그림을 실은 번역서 1과 2가 번역서 3에 비해 어린 독자 지향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어른과 아이라는 이중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The Wind in the Willows*는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른 지향적, 아니면 아동 지향적인 단일 독자층을 목표로 한 번역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과정에서 번역서의 대상 독자층이 어른과 어린이로 구분되어 각각의 단일 독자층으로 한정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4. 대상 독자층 변화와 번역 규범과의 관계

이중 독자 모두에게 어필하는 원문을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아동용, 혹은 어른용으로 한정하여 소개한 배경과 이유는, 번역과정에서 작용하는 번역의 규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데스미트(Desmidt 2006 86)는 아동문학 번역에서 작용하는 규범은 일반문학 번역의 규범보다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번역과정에서 작용하는 규범을 (1) ST(Source Text) 관련성 규범 (원문과 원저자에 충실하려는 규범) (2) 문학성 및 미학적 규범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방법으로 번역하려는 규범) (3) 비즈니스 규범 (편집, 출판, 유통 과정에서 상업적인 본질에 충실하려는 규범), (4) 교훈성 규범 (번역서를 통해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추구하는 규범) (5) 교육성 규범 (아동의 인지, 언어 능력에 적합한 번역을 추구하는 규범) (6) 지면 형식성 규범 (지면 배열, 삽화 관련 규범)으로 제안한 바 있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의 경우, 원문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처음 아동문학으로 출발한 뒤,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어필하는 내용과 표현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중 독자층에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번역서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전혀 다른 독자층에, 100년의 시간차를 둔 다른 시대의 독자층에 선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위의 규범들이 작동하여 단일 독자층을 겨냥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우선 첫 번째 ST 관련 규범부터 살펴보면 이 규범은 원문을 충실하게 재현(represent)하려는 규범으로 그 결과 번역문에서 독자의 수용성(acceptance)보다는 적절성(adequacy)을 중시하게 된다. *The Wind in the Willows*는 시대를 초월하여 독자의 감동을 자아내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100년 전 영국의 사회상, 시대상,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이 주 내용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내용면에서 이런 이국적인 특성을 띠고 있고, 형식면에서 100년 전 영어 표현을 담고 있는 원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을 때 그 번역문에 대한 수용도는 어른과 어린이, 양 독자층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언어적, 인지적으로 성숙하고 문화적 경험이 풍부한 어른은 가독성을 저해하는 이국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번역문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어린 독자들은 번역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원문이 주는 감동과 흥미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위에서 밝힌 네 번째 규범인 교훈성 규범과 다섯 번째 교육성 규범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아동의 인지, 언어적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번역을 제공하여, 가독성이 저하되면, 결과적으로 어린 독자들은 아동문학의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인 지적, 언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아동문학은 교육적 목표가 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번역사가 일반문학을 번역할 때와는 달리 교훈성 규범과 교육성 규범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번역과정에서 이러한 규범이 작용하고 있어 같은 원문이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른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번역전략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적이고 미학적으로 번역하려는 규범 역시 대상 독자층에 따라 번역결과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른에게 미학적인 글과, 어린이에게 미학적인 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The Wind in the Willows*에서 보듯이 아무리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장 길이가 너무 긴 경우, 어른은 미학적 차원에서 감상할 수 있으나 어린이는 이해 자체가 어렵게 된다. 원문에서는 문장 길이가 어느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번역문에서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 및 정보배열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적 미학적 측면에서 이중 독자층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독자층을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번역서가 단일 독자층을 겨냥하게 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비즈니스 규범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볼 수 있다. 출판의 상업적인 본질을 고려할 때 어른과 어린이 모두를 겨냥한 작품은 그 어느 쪽에도 어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중 독자층을 표방하여,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지대를 염두에 두고 번역서를 출판할 경우, 양측 모두에게서 외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문학 도서를 찾는 어른독자를 위해 어른용 도서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자녀에게 읽히기 위해 아동문학 작품을 고르는 어른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용 도서로 번역하여 소개하여야 고정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처음에는 어린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되었으나 어른에게까지 폭넓게 사랑을 받아온 원문이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어린이와 어른, 대상 독자를 구분하여 번역이 이루어진 원인을 번역의 규범과 연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다음에는 이처럼 같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과정에서 대상 독자층을 다르게 설정하였을 때 번역 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 보겠다.

## 5. 독자층에 따른 번역전략의 차이

### 5.1 문학적 목적의 의성어 의태어 사용

아동문학 평론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에는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김세희는 우리나라 말의 내적 리듬감은 글자, 단어, 구절, 문장의 반복과 의성어 의태어에서 생겨난다고 하였고, 이성은도 아동을 위해 글을 쓸 때 단어의 리듬감을 강조하며 그 책을 소리 내어 읽었을 때 강한 인상을 창조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2000 심성경 재인용). 의성어 의태어는 의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나 청자에게 그 소리나 모양, 움직임이 직접 보이거나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 결과 아동이 문학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이유로 아동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줄 아동문학에서 의성어 의태어 사용이 권장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The Wind in the Willows*는 번역시 의성어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숲과 강변의 모습, 그 안에서 나는 온갖 소리, 그 안에 사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원문의 표현들을, 어린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 1(TT1)과 번역서 2(TT2)에서는 의식적으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묘사하였으나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서 3(TT3)에서는 의성어 의태어 사용이 확연히 적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한 예는 다음과 같다.

[ST] This sleek, sinuous, full-bodied animal, chasing and chuckling, gripping things with a gurgle and leaving them with a laugh, to fling itself on fresh playmates that shook themselves free, (중략) glints and gleams and sparkles, rustle and swirl, chatter and bubble. The Mole was bewitched, entranced, fascinated.

[TT1] 강은 매끄럽고, 구불구불하고, 통통한 동물 같았다. 이 동물은 꿀꿀거리며 무언가를 쫓아가서 괄괄거리면서 붙잡았다가 썩썩거리면서 놓아 주었다. (중략) 이 동물은 반짝거리면서 번쩍거리면서 팻팻거리면서 찰찰대면서 윙윙대면서 줄줄거리면서 보글거리면서 몸서리를 쳐 냈다. 모울은 그 동물한테 홀딱 반해서 얼이 나가고 났이 빠졌다.

[TT2] 미끌미끌하고 흐느적대는 이것은 무슨 동물일까. 그것은 키득대면서 무언가를 잡았다가 웃음을 터뜨리며 놔주고, (중략) 반짝거리고 줄줄 소리를 내고 휘휘 돌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거품을 만들고, 두더지는 강에 홀딱 반해 버렸다.

[TT3] 구부정한 몸으로 매끄럽게 움직이는 동물 같은 강을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불어난 강물은 결결거리고 흘러가며 강가의 무엇인가를 붙잡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요란하게 웃으며 놓아주고, 다른 놀이 상대를 찾아 떠났다. 붙잡고, 흔들어주고, 번쩍이며 쓸어주고, 소용돌이를 치며 재잘거리고, 거품을 일으킨다. 두더지는 마법에 걸린 듯 매료되고 말았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번역서 1에서는 ‘구불구불’, ‘통통’, ‘꿀꿀’, ‘괄괄’, ‘썩썩’, ‘반짝’, ‘번쩍’, ‘팻팻’, ‘찰찰’, ‘윙윙’, ‘줄줄’, ‘보글’, ‘홀딱’ 등의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가 사용되었으나, 번역서 3에서는 ‘결결’, ‘번쩍’, ‘재잘’만 사용되었다. 의성어 의태어는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유치한 표현이라는 시각에서 어른을 대상 독자로 하는 번역서 3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풀

이된다.

## 5.2 교육적 목적의 부연 설명

아동문학은 어린이의 언어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강문희(1997)는 아동문학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네 가지 지적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아동문학은 아동의 어휘력을 신장시킨다. 아동은 문학작품 속에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게 되고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기도 하면서 점차 언어기술이 증대되고 언어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다. 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문학은 언어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어휘를 교육시키려는 교육적 목표가 분명한 장르이다. 그런데 번역서의 경우, 어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자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문화 관련 용어들이 등장했을 때이다.

아이켄(Aiken 1976 22)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독서활동에서 낯선 단어들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책을 읽다가 멈추고 모르는 단어를 찾지 않고 의미를 추측하며 읽는다 고 하였다. 또한 파스쿠아(Pascua 2003 276)는 “번역은 다문화 교육행위로 이국화 전략은 새로운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국적인 것, 낯선 것, 타자에 대한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번역방침 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아동문학 번역서에서 이국적인 낯선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추세이다. 아동들이 번역서를 통해 다른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번역사가 아동문학의 문화 교육 기능을 크게 고려하게 된 것이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도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언어 및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가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문화 및 역사 관련 어휘를 설명해주려는 번역사의 전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의식주 관련 어휘 및 역사적 배경지식을 요하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아동을 대상독자로 하는 번역서 1과 번역서 2에서는 괄호 안에 자세히 주석을 넣거나, 내용 중에 설명을 추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어른을 독자층으로 설정한 번역서 3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주석이나 원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불필요한 설명을 일체 추가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어른을 위한 번역서 3에서는 독자에게 새로운 어휘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국적인 요소를 배제한 자

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번역시 자국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ST] “I like your clothes awfully, old chap. I am going to get a black velvet smoking suit myself some day, as soon as I can afford it.

[TT1] “이봐 친구, 네 옷 참 좋다. 나도 형편이 되면 언젠가는 검정 벨벳 스모킹 슈트(서양 남자들이 연회 때 입는 예복:울긴이)를 장만할 거야.

[TT2] “네 옷이 진짜 맘에 든다. 나도 언젠가 검은 벨벳으로 만든 양복을 입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말아야.

[TT3] “나도 언젠가는 그런 검은 색 정장을 사야겠어. 그럴 만한 여유가 생기는 대로 말아야.

[ST] One knew, as if string-music had announced it in stately chords that strayed in to a gavotte, that June at last was here.

[TT1] 현악 연주곡이 장중한 화음에서 갑자기 가보트곡(프랑스의 전통적인 농촌 무용곡:울긴이)으로 바뀌면서 신호라도 한 듯이, 이제 모두들 6월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TT2] 마치 현악기들이 당당하게 소리 맞춰 가보트 춤곡을 연주하듯 마침내 6월이 찾아왔다.

[TT3] 그러면 현악기의 쾌활한 연주가 춤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듯이 누구나 마침내 6월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위의 첫 번째 사례에서 보면 번역서 1은 ‘벨벳 스모킹 슈트’라고 음차역을 한 뒤 자세히 역주를 추가하였고, 번역서 2는 검은 ‘벨벳으로 만든 양복’으로 번역하였고, 번역서 3은 ‘벨벳’을 아예 생략하였다. 다음 두 번째 사례에서도 번역서 1과 번역서 2에서는 ‘가보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설명을 덧붙였으나, 번역서 3에서는 단순히 ‘춤’으로 번역하여 구체적인 용어(hyponym)를 일반적인 용어(superordinate)로 번역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ST] On the walls hung wire baskets with ferns in them, alternating with brackets carrying plaster statuary-Garibaldi, and the infant Samuel, and Queen Victoria, and other heroes of modern Italy.

- [TT1] 벽에는 양치 식물이 담긴 철사 바구니들이 걸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 가리발디(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몸을 바친 애국자:울긴이), 청년 시절의 사무엘(옛 이스라엘의 예언자:울긴이),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근대 이탈리아 영웅들의 석고상이 있었다.
- [TT2] 벽에 걸린 철사 바구니에는 고사리 비슷한 식물이 담겨 있고, 석고 조각상도 붙어 있었다. 가리발디(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몸을 바친 애국자:울긴이), 어린 사무엘(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을 단행하였다. 기도하는 모습의 조각상이 유명하다:울긴이), 빅토리아 여왕(영국의 여왕:울긴이)과 이탈리아 영웅들의 조각상이었다.
- [TT3] 벽에 걸린 바구니에는 양치 식물들이 담겨 있고, 가리발디, 어린 사무엘,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현대 이탈리아 영웅들의 석고인형이 담겨있는 바구니도 보였다.

위의 사례를 보면 어린 독자들에게 역사적 배경지식을 가르쳐주려는 번역문의 목적과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번역서 1과 번역서 2에서는 ‘가리발디’, ‘사무엘’, ‘빅토리아 여왕’이 누구인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인물인지 가르쳐줄 목적으로 과도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연설명이 더해졌다. 반면 번역서 3에서는 일체의 추가 설명 없이 이름만 나열하였다. 번역서 3의 독자층인 어른들이 이 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번역서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지 않고 문학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하게 번역한 결과로 해석된다.

### 5.3 가독성 목적의 긴 문장 나누기

아동문학이 지닌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려면 아동이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아동문학을 번역했을 때는 원문 언어와 번역문 언어 간의 어순 및 정보 배열상의 차이로 인하여 가독성이 저하되기 쉽다. 여기에 문장의 길이까지 길어지면 어린이가 읽고 이해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복잡하거나 길이가 긴 문장은, 원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번역문에서 나누어 여러 문장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The Wind in the Willows*에도 길이가 긴 문장이 대거 등장하는데 아

등을 독자층으로 고려한 번역서 1과 번역서 2에서는 문장을 끊어서 번역하고, 번역서 3에서는 그대로 길게 번역을 하였다. 그 중의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 Across the market-place, where the playful populace, always as severe upon detected crime as they are sympathetic and helpful when one is merely "wanted," assailed him with jeers, carrots, and popular catch-words.

[TT1] 토드가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터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당근을 던지고 야유를 하고 구호를 외쳐 댔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가 그 저 경찰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동정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그만큼 더 냉정해졌다.

[TT2] 장터를 지날 때에는 구경꾼들이 야유하면서 당근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지명 수배'를 받을 때는 다들 동정하지만, 붙잡히면 못 살게 구는 법이다.

[TT3] 물건 값을 흥정하는 소리들로 왁자지껄한 시장을 지날 때 단순히 지명 수배된 용의자를 대하는 경우에는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도와주기까지 하는 시민들이, 확정범인 두꺼비가 나타나자 흥당무를 던지기도 하고 야유를 퍼붓기도 하고, 귀에 익은 구호를 외쳐대기도 하며 그를 경멸하고 조롱했다.

위의 예에서, 번역서 1과 번역서 2에서는 원문의 한 문장이 두 문장으로 나뉘어 번역되었으나, 번역서 3에서는 그대로 한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그 결과, 번역서 3의 경우 그 문장의 주어인 '시민들이'가 나오기 전에 시민을 꾸며주는 신정보(new information)가 길게 나열되어 독자가 머릿속에 저장해두어야 할 정보가 많이 등장한다. 또한 서술어가 나오기 전에도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많은 정보가 삽입되어 독자의 메모리 체계에 큰 부담을 준다. 독자층을 어른과 어린이로 다르게 설정한 결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번역 전략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 결론

아동문학은 원래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고 어린이가 읽는 문학이지만, 동시에 어른이 집필하고, 어른이 출판하고, 어른이 구매하는 문학이기도 하다. 이중 독자층이 내재한 이러한 아동문학의 특성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문의 이중 독자층이 번역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독자층 변화에 따라 번역전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100여 년에 걸쳐 어른과 어린이, 양 쪽 독자층에서 광범위한 사랑을 받아온 영국 아동문학의 고전 *The Wind in the Willows*와 번역서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세 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원문은 이중 독자층에 어필하나, 번역서에서는 어른, 아니면 어린이, 단일 독자층을 목표로 번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서에서 대상 독자를 단일 독자층으로 한정된 이유를 번역과정에서 작용하는 규범이론으로 설명하였다. ST관련 규범, 문학성 규범, 비즈니스 규범, 교육성 규범, 교훈성 규범 등이 작용하여, 세 편의 번역서 중에서 두 편은 어린이를 목표 독자로, 나머지 한 편은 어른 독자층을 목표로 번역되었다고 판단된다. 독자층을 다르게 설정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번역서에서는 문학적 목적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교육적 목적에서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며, 가독성 목적에서 긴 문장은 나누어 번역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른과 어린이, 이중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문학의 경우, 아동문학에 내재한 교육적 목표로 인하여 원문의 이중 독자층이 번역문에서는 단일 독자층으로 한정되어, 대상 독자층에 따라 번역 전략이 확연히 달라짐을 고찰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문화. 1997. 『아동 문학 교육』. 학지사  
 김서정. 2003. 『어린이문학만세』. 푸른책들.  
 심성경 외. 2003. 『유아문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이성은. 2003. 『아동문학교육: 지식과 감성시대』. 교육과학사.
- 임원재. 2000. 『아동문학교육론』. 신원문화사.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 Aiken, Joan. 1976. *The Angel Inn: Joan Aiken's Translation of a Story by the Comtesse De Ségur*. Jonathan Cape.
- Beckett, Sandra. 1999. 'Crosswriting Child and Adult in France: Children's fiction for Adults? Adult Fiction for Children? Fiction for All Ages?', *Transcending Boundaries*. Garland.
- Desmidt, Isabelle. 2006. 'A Prototypical Approach within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 Translator's prefaces' in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St. Jerome.
- Fudvin, Mette & Francesca Orlati. 2006. 'Dual Readership and Hidden Subtexts in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or's prefaces' in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St. Jerome.
- Hunt, Peter. 1991. *Criticism, Theory, & Children's Literature*. Oxford: Blackwell.
- Lathey, Gillian. 2006. 'The Translator Revealed: Didacticism, Cultural Mediation and Visions of the Child Reader in Translator's prefaces',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St. Jerome.
- Lathey, Gillian. 2006.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Multilingual Matters.
- Nikolajeva, Maria. 1999. 'Children's, Adult, Human?', *Transcending Boundaries*. Garland.
- Oittinen, Riitta. 2006. 'No Innocent Act: On the Ethics of Translating for Children' in Translator's prefaces' in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St. Jerome.
- Pascua-Febles, Isabel. 2003.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Education', *Meta* 48(1:2), 276-84.
- Pascua-Febles, Isabel. 2006. 'Translating Cultural References: The language of Young People in Literary Texts' in Translator's prefaces',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St. Jerome.

Shavit, Zohar. 1999. 'The Double Attribution of Texts for Children and How It Affects Writing for Children', *Transcending Boundaries*. Garland.

Wall, Barbara. 1991. *The Narrator's Voice: The Dilemma of Children's Fiction*, Macmillan Academic And professional Ltd.

[Abstract]

**Translating for a Dual Audience of Children and Adults**  
— Focusing on Kenneth Grahame's *The Wind in the Willows*

Jisun Sh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ranslation strategies employed in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that are written for a dual audience of children and adults. Under the assumption that no one translation can suit both adults and young readers,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Kenneth Grahame's *The Wind in the Willows* are analyzed to identify the different translation shifts.

The analysis of translators' foreword, book cover, illustration, and publisher in the three translations indicates that the two are intended for child readers and the other one is for adults. Reflecting target reader's experience, age, culture and background knowledge, the first two translations use more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to provide children with literary pleasure, show extensive explicitation for pedagogical purpose, and divide long sentences into short ones for readability concern.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Wind in the Willows* have undergone numerous changes in the process of meeting the expectations of young readers. These shifts can be ascribed to the Desmidt's translation norms operating when translating for children. They are source-text related norms, literary and aesthete norms, business norms, didactic norms, pedagogical norms, and technical norms.

▶ Key Words: dual audience,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 shift, explicitation, translation norms, readability

신지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전임강사

[jisunshin@ewha.ac.kr](mailto:jisunshin@ewha.ac.kr)

관심분야: 아동문학 번역,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09년 08월 05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